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박소연* · 이홍직**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 Youth

So-Youn Park* · Hong-Jik Lee**

요 약

본 연구는 제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자료를 활용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독립변인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과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 수준을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 통계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둘째, 각 독립변인의 하위집단별 인터넷 중독 수준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으며, 셋째, 각 독립변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제시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남학생인 경우에,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 건강 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스트레스정도가 높은 경우에,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일탈행동 요인에서는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인터넷 중독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health, and delinquent behavior factor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the Korean youth. This study used the 2009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data. It selected 73,238 cases of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raw data and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eing male, living without parents, low economic status, poor academic record, poor subjective health status, poor subjective well-being, high level of stress, presence of depression and experience of drug use significantly increased likelihood of internet addiction. Findings may be used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deal with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in Korea.

키워드

Korean youth, internet addiction, socio-demographic, health, delinquent behavior
청소년, 인터넷중독, 인구사회학적특성요인, 건강요인, 일탈행동요인

*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부(spark831@gmail.com)

** 교신저자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hongjiklee@kangnam.ac.kr)

접수일자 : 2012. 12. 10

심사(수정)일자 : 2013. 01. 07

게재확정일자 : 2013. 02. 20

1. 서론

2009년 5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7.2%에 이르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 이용률은 99%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1][2][3][4][5]. 이렇듯 인터넷은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있어 일상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이들의 삶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6][7]. 인터넷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도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즉각적 정보의 확산, 인간관계의 확장, 의사소통의 활성화, 새로운 커뮤니티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등의 순기능을 제공한다[1][6][7][8][9][10].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이 지니는 효용의 이면에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3][6][7][11][12][13][14][15].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으로 급격히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따른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16][17].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지나친 입시위주교육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를 비롯한 사회에서의 부적응을 빈번히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적잖은 청소년들은 현실도피 및 스트레스 해소의 기제로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이로 인해 본연의 문제해결은 고사하고 또 다른 위협에 처하게 되곤 한다[14][18].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터넷 중독을 들 수 있다. 이를 실증하듯이 한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는 인터넷 중독 고위험, 잠재적 위험 및 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만 13-15세 와 만 16-19세 연령집단을 제시하고 그 심각성에 주의를 요청하고 있다[19].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청소년 14.3% 중에서 31.1% 정도가[4] 인터넷 중독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심리적 의존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된다[17][20]. 즉,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나타나 학업성취도도 떨어지게 만들고, 가족간의 갈등, 대인관계의 와해 등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한다는 것이다[1][7][8]. 극단적으로는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모방 범죄, 살인, 폭력

및 자살 등을 부추기고 있어 인터넷 중독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다[7][21][22][23].

이러한 여건에서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및 중독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중독 여부(threshold)를 결정하는 타당한 척도를 활용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절대적 인터넷 이용 시간이나 빈도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인터넷의 중독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이 인터넷 중독 원인과 그 영향의 규명에 있어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개인의 심리적 변인 등 단편적, 파편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상기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관련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한국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인 간략형K 척도라는 비교적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중독이 초래하는 결과나 영향에 대한 고찰에 앞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다양한 위험·보호 요인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전국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나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위 요인들을 통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각적인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이 이들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9년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2009년도 제5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2009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자료 중 일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본 연구가 고찰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 일탈행동 등의 변수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전국의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생을 일정부분 조사대상으로 참여시켜 지역과 학년의 특수성을 완화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녀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2005년도 이래로 매해 16개 시도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73,238명을 표본을 선정하여 수집된 자료이다. 2009년도 조사에서는 75,066명이 응답하여 97.6%의 응답률을 보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는 원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변수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조작화하였다. 각 변수별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3.1 인터넷 중독

원시 자료에서 인터넷 중독은 한국형 인터넷 중독자가 진단 척도인 간략형K 척도로 일상생활장애요인, 현실구분장애 요인, 긍정적 기대 및 장애요인, 가상적대인관계 지향성 요인, 일탈행동, 내성 등 6개요인으로 구성된 총 20문항의 척도로 측정되었다[17].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 척도의 신뢰계수는 0.92로 나타났으며, 각 4점 척도로 총 80점 중 45점 이상인 경우를 중독으로 파악하였다.

2.3.2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에서 추출한 성별, 부모와의 동거형태, 가계경제수준, 학년, 학업성적 등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성별은 남, 여로, 부모와의 동거형태는 양부모와의 동거여부로, 가계경제수준은 상, 중, 하의 세 단위로, 학년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6개 학년으로, 학업성적은 상,

중, 하의 세 단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 1. 변수의 소개
Table 1. Description of variables

구분	변인	변수	설명
종속변인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신뢰계수 =.92)	0 = 아니오 1 = 예
		성별	0 = 여 1 = 남
		부모와의 동거여부	0 = 아니오 1 = 예 1 = 하 2 = 중 3 = 상
		가계경제수준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1 = 중학교 1학년 2 = 중학교 2학년 3 = 중학교 3학년 4 = 고등학교 1학년 5 = 고등학교 2학년 6 = 고등학교 3학년
		학년	1 = 하 2 = 중 3 = 상
독립변인	건강요인	학업성적	1 = 하 2 = 중 3 = 상
		주관적 건강인지	1 = 하 2 = 중 3 = 상
		주관적 행복	1 = 하 2 = 중 3 = 상
		스트레스수준	1 = 하 2 = 중 3 = 상
		우울여부	0 = 아니오 1 = 예
		흡연여부	0 = 아니오 1 = 예
일탈행동요인	음주 여부	0 = 아니오 1 = 예	
	약물사용 경험	0 = 아니오 1 = 예	

2.3.3 건강 요인

본 연구에서는 원시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건강관련 척도 중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우울여부 등에 대한 변수를 건강요인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지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수준은 상, 중, 하의 세 단위로, 우울여부는 최근 12개월 동안 2주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

거나 절망감을 느낀 경험의 유무로 측정하였다.

2.3.4. 일탈행동 요인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에서는 일탈행위와 관련 흡연, 음주, 약물사용경험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는 최근 30일동안 흡연여부와 술 1잔 이상을 마신 경우를 흡연과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약물사용 경험은 부탄가스, 본드 등의 약물을 습관적 또는 일부로 사용한 경험의 여부를 이원화하여 측정하였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요인, 일탈행동요인 등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인 인터넷 중독 여부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측정하였으며, 둘째, 각 독립변수에 따른 인터넷 중독 여부의 차이를 카이제곱검증(chi-square test)을 통해 비교분석하였으며, 셋째, 각각의 독립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SPSS WIN 17.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2는 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년, 학업성적 등 개인적 특성, 가족특성, 학교특성 등을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38,391명(52.42%), 여학생이 34,847명(47.58%)으로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있어서는 양부모와 모두 동거하는 경우가 60,238명(83.36%)으로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계경제수준에 있어서는 중이 34,253명(46.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이 21,072명(28.77%), 하가 17,913명(24.46%) 순으로 나타나 중 이상으로 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학년에 있어서는 중 3학년생이 12,603명(17.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 3학년생이 11,523명(15.73%)로 가장 적었으며, 학업성적에 있어서는 하가 27,636명(37.73%)

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이 25,951명 (35.43%), 중이 19,651명(26.8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변인	변수	범주	빈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성별	여	34,847 (47.58)
		남	38,391 (52.42)
	부모와의 동거여부	아니오	12,027 (16.64)
		예	60,238 (83.36)
	가계경제수준	하	17,913 (24.46)
		중	34,253 (46.77)
상		21,072 (28.77)	
학년	중학교 1학년	12,468 (17.02)	
	중학교 2학년	12,499 (17.07)	
	중학교 3학년	12,603 (17.21)	
	고등학교 1학년	12,021 (16.41)	
	고등학교 2학년	12,124 (16.55)	
	고등학교 3학년	11,523 (15.73)	
학업성적	하	27,636 (37.73)	
	중	19,651 (26.83)	
	상	25,951 (35.43)	
주관적 건강인지	하	5,999 (8.19)	
	중	20,768 (28.36)	
	상	46,471 (63.45)	
주관적 행복	하	9,912 (13.53)	
	중	23,601 (32.23)	
	상	39,725 (54.24)	
스트레스수준	하	11,475 (15.67)	
	중	29,669 (40.51)	
	상	32,094 (43.82)	
우울여부	아니오	45,855 (62.62)	
	예	27,372 (37.38)	
흡연여부	아니오	64,301 (87.80)	
	예	8,937 (12.20)	
일탈행동요인	음주여부	아니오	57,683 (78.76)
	예	15,555 (21.24)	
약물사용 경험	아니오	71,838 (98.09)	
	예	1,400 (1.91)	

둘째, 건강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우울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인지에 있어서는 상이 46,471명(63.45%), 중이 20,768명(28.36%), 하가 5,999명(8.19%) 순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주관적 행복에 있어서는 상이 39,725명(54.24%), 중이 23,601명(32.23%), 하가 9,912명(13.53%) 순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스트레스 수준에서도 상이 32,094명(43.82%), 중이 29,669명(40.51%), 하가 11,475명(15.67%)순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우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여부에 있어서는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45,865명(62.62%), 우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7,372명(37.38%)으로 우울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탈행동에 있어서는 흡연, 음주, 약물사용경험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흡연여부에 있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8,937명(12.20%)이 조사 시점 기준 최근 30일 동안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에 있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15,555명(21.24%)이 최근 30일 동안 술 1잔 이상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물사용경험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 중 1,400명(1.91%)이 부탄가스, 본드 등의 약물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2 인터넷 중독 빈도 및 여부

다음의 표 3은 본 조사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20문항의 질문의 점수는 평균 30.04± 9.50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중독인 총점 45점 이상의 경우는 5,753명(7.86%)으로 나타났다.

표 3. 인터넷 중독 여부
Table 3. Level of internet addiction

변수	범주	빈도(%)
인터넷 중독	아니오	67,485(92.14)
	예	5,753(7.86)

3.3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요인, 일탈행동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요인, 일탈행동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집단간 차이는 표 4와 같다.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가계경제수준, 학업성적,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 건강인지, 주관적 행복, 스트레스, 우울여부,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음주, 흡연, 약물사용경험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 독립변인에 따른 인터넷 중독
Table 4. Internet addiction according to independent variables

변인	변수	범주	인터넷중독 빈도(%)		χ^2
			무	유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	성별	여	33,054(94.85)	1,793(5.15)	674.43***
		남	34,431(89.69)	3,960(10.31)	
	부모와의 동거여부	아니오	10,762(89.48)	1,265(10.52)	146.24***
		예	55,855(92.72)	4,383(7.28)	
	가계경제 수준	하	15,978(89.20)	1,935(10.80)	291.85***
		중	31,806(92.86)	2,447(7.14)	
		상	19,701(93.49)	1,371(6.51)	
	학년	중학교	34,612(92.13)	2,958(7.87)	0.04
		고등학교	32,873(92.16)	2,795(7.84)	
	학업성적	하	24,959(90.31)	2,677(9.69)	206.19***
중		18,305(93.15)	1,346(6.85)		
상		24,221(93.33)	1,730(6.67)		
주관적 건강인지	하	5,016(83.61)	983(16.39)	795.02***	
	중	18,916(91.08)	1,852(8.92)		
	상	43,553(93.72)	2,918(6.28)		
건강요인	주관적 행복	하	8,312(83.95)	1,591(16.05)	1200.0***
		중	21,724(92.05)	1,877(7.95)	
		상	37,440(94.25)	2,285(5.75)	
스트레스 수준	하	하	10,999(95.85)	476(4.15)	779.91***
		중	27,897(94.03)	1,772(5.97)	
		상	28,589(89.08)	3,505(10.92)	
	우울여부	아니오	43,075(93.92)	2,790(6.08)	532.43***
		예	24,410(89.18)	2,963(10.82)	
	흡연여부	아니오	59,517(92.56)	4,784(7.44)	125.50***
예		7,968(89.16)	969(10.84)		
일탈행동 요인	음주여부	아니오	53,380(92.54)	4,303(7.46)	58.68***
		예	14,105(90.68)	1,450(9.32)	
약물사용 경험	아니오	아니오	66,327(92.33)	5,511(7.67)	175.37***
		예	1,158(82.71)	242(17.29)	

*** p<.001

즉, 인구사회학적특성 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chi^2=674.43$, $p<.001$),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에($\chi^2=146.24$, $p<.001$),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chi^2=291.85$, $p<.001$), 성적이 낮은 경우에($\chi^2=206.19$, $p<.001$) 인터넷 중독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chi^2=785.02$, $p<.001$),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chi^2=1200.00$, $p<.001$),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chi^2=779.91$, $p<.001$),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chi^2=532.43$, $p<.001$) 인터넷 중독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행동요인에

있어서는 흡연을 하는 경우에($\chi^2=125.50, p<.001$), 음주를 하는 경우에($\chi^2=58.68, p<.001$),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chi^2=175.37, p<.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 집단과 고등학생 집단간 인터넷 중독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학년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모든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 중에서는 약물 이용경험만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남학생일수록($OR=2.63, p<.001$),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OR=.79, p<.001$),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OR=.87, p<.001$), 학업성적이 낮을수록($OR=.91, p<.001$), 건강 요인에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OR=.71, p<.001$),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낄수록($OR=.79, p<.001$), 스트레스수준이 높을수록($OR=1.45, p<.001$), 우울을 경험할수록($OR=1.42, p<.001$), 일탈행동 요인에서는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을수록($OR=1.99, p<.001$)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모형에 적용한 예측요인들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설명력은 7.0% ($pseduo R^2$) 정도로 나타났다.

표 5.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Determinants of internet addiction

요인	OR	95% CI
인구사회학적 특성요인		
성별(남성)	2.63***	(2.47 ~ 2.79)
부모와 동거여부	0.79***	(0.74 ~ 0.85)
가계경제수준	0.87***	(0.84 ~ 0.91)
학년	0.98	(0.99 ~ 1.00)

학업성적	0.91***	(0.88 ~ 0.94)
건강요인		
주관적 건강인지	0.71***	(0.68 ~ 0.73)
주관적 행복	0.79***	(0.76 ~ 0.82)
스트레스수준	1.45***	(1.38 ~ 1.53)
우울여부	1.42***	(1.33 ~ 1.51)
일탈행동요인		
흡연여부	0.98	(0.90 ~ 1.07)
음주여부	1.03	(0.96 ~ 1.10)
약물사용여부	1.99***	(1.70 ~ 2.32)
상수	0.11	(0.11 ~ 0.16)
Lr Chi2	2796.81	
Pseudo R square	0.07	

* p<.05, ** p<.01, *** p<.001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 건강 요인, 일탈행동 요인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의해 정리하여 제시하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남학생인 경우에,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 건강 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스트레스정도가 높은 경우에,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일탈행동 요인에서는 약물사용 유경험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에서는 남학생인 경우에, 양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가계의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 인터넷 중독의 개연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남학생들에게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해결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남학생 집단내에서 인터넷 중

독과 같은 부정적 일탈행위가 보다 빠르게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게임이나 음란물 등 콘텐츠의 내용이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심층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이들이 겪을 수 있는 금단현상에 대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터넷 이용의 자가 조절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별적 사전, 사후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남학생 또래집단에서 강요나 압력(peer pressure)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확인과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 교육 및 치료와 함께, 보다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둘째, 선행연구[6]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좋을수록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부모의 역할이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즉, 부모의 적극적 개입과 지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과 중독의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에 있어서 가족과 이를 보완하는 학교 및 지역사회의 세심한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가계경제수준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저조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의 경우 방과 후 학원 또는 다양한 과외 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의 경우는 이러한 활동참여의 제약으로 인해 비교적 인터넷 매체에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24]. 따라서, 가계의 경제력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저조한 경우의 청소년에게도 경제적 수준에 상관 없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을 가꾸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기 적성 활동의 참여기회를 증진시키는 노력과 학업외에도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적합한 분야의 개발을 지원하며, 자신의 효능감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과외활동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건강요인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스트레스정도가 높은 경우에, 우울을 경험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 중독의 개연성을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즉,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 공히 인터넷 중독을 부추기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들의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활동과 정신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고려가 인터넷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일탈행동 요인에서는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경우에 높은 인터넷 중독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에게도 있어서 약물사용 경험이 인터넷 이용에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약물사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즉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이 큰 고 위험군으로 파악하여 보다 각별한 주의와 보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 대상 약물사용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는 예방교육과 사후 행동수정이나 상담 프로그램은 심신상의 안녕을 보장하는 차원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보다 일차적으로는 면밀한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개입에 있어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차적 자료 분석에 의한 것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찰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인들을 간과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는 본 연구가 지닌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기본적 실태파악과 탐색,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인터넷 중독이 초래하는 폐해와의 인과성을 실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건전하고도

과적인 매체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전달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1] 김경호, 차은진,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2권, 2호, pp. 364-401, 2012.
- [2] 박지은, 최연희,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충동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재활간호학회지, 14권, 2호, pp. 145-152, 2011.
- [3] 정동우, 정혜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학업성적 사이의 상호적 인과성 분석 :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언론학보, 54권, 4호, pp. 97-119, 2010.
- [4] 오원옥,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3권, 1호, pp. 81-89, 2007.
- [5] 오원옥, “중학교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실태 및 중독 관련 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9권, 1호, pp. 33-49, 2004.
- [6] 김진희, 김경신,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5권, 1호, pp. 137-166, 2004.
- [7] 이경화, 홍정화,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요인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7권, 1호, pp. 48-57, 2005.
- [8] 나은영, 박소라, 김은미, “가족평등대화와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 자기효능감과 가족갈등의 매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6권, 4호, pp. 6-49, 2009.
- [9] 김기봉, 양황규, “피지털 컴퓨팅을 이용한 교육용 인터랙티브 지구본 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4호, pp. 511-516, 2011.
- [10] 이태웅, 손철수, 김원중, “스마트 폰에서 인터넷 사이트 정보 재가공에 대한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2호, pp. 319-324, 2011.
- [11] 김교정, 서상현,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환경변인의 경로 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권, 1호, pp. 149-179, 2006.
- [12] 변성희, 김정민,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사용수준에 따른 인터넷 게임 이용동기와 학교생활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권, 2호, pp. 47-58, 2007.
- [13] 서주현, 유안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한국아동학회, 22권, 4호, pp. 149-166.
- [14] 오현이, 심미정, 오효숙. “농촌지역 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우울정도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지, 35권, 2호, pp. 124-133, 2010.
- [15] 진성철, 김인경,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에 관한 연구 : 성별, 이용량, 이용 빈도를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6권, 5호, pp. 731-737, 2011.
- [16] Young, KS.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 No. 3, pp. 237-244, 1998.
- [17] 김동순, 김유숙, 김소희, 장미선, 장영희, 박종,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경험과 인터넷 중독과의 관련성”,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7권, 4호, pp. 937-944, 2012.
- [18] 김영희, 서정아,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 관련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권, 1호, pp. 63-70, 2007.
- [19]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 [20]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및 또래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과 음주행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권, 2호, pp. 131-156, 2009.
- [21] 박선영, 이준,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무망감 간의 관계 연구”, 한국전자통신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지, 1권, 1호, pp. 203-207, 2007.
- [22] Kim, K, Ryu, E., Chon, MY, Yeun, EJ, Choi, SY, Seo, JS, & Nam, BW. “Internet addiction in Korean adolescents and its relation to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 A questionnaire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3, pp. 185-192, 2006.
- [23] Wei, R. “Effects of playing violent video-games on Chinese adolescents’ pro-violence attitudes, attitudes toward others, and aggressive behavior.” *CyberPsychology & Behavior*, Vol. 10, No. 3, pp. 371-380, 2007.
- [24] 김용택, 이진우, 양지혜,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18권, 2호, pp. 29-55, 2008.

저자 소개



박소연(So-Youn Park)

1996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과 졸업(학사)

1999년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졸업(Master of Science in

Social Work)

2010년 New York University Sliver School of Social Work 졸업(Ph.D. in Social Work)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



이홍직(Hong-Jik Lee)

1993년 연세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문학사)

1995년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Mandel School of Applied

Social Sciences 졸업(Master of Science in Social Administration)

2003년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Social Work 졸업(Ph.D. in Social Work)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2011년~현재 경실련 사회복지위원

※ 관심분야 : 인터넷통신, 사회복지 디지털컨텐츠